

“사법개혁 저항 우두머리”... 민주 ‘조희대 사퇴’ 총공세

정청래 “그동안 뭘하다가 갑작스러운 대변혁 운운”
이성윤도 “법원개혁 맞선다면 탄핵 직면” 경고

사법개혁 3법(법외폭죄 신설, 재판소원 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국회 입법 활동을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사법 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여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 가서 뭘 하다가 버스타 난 뒤에 손 흔들고 있냐”라고 꼬집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

지도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때도 법원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라며 “그후에 강하게 질타했다는 기억이 저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법 외곡을 바로잡고 잘못된 재판 결과에 구제의 길을 열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법관도 증원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될 이유가 있겠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수고 윤석열과 그 잔당들에 대한 침대 촉구 재판으로 사법 불신을 눈덩이처럼 키우는 것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느냐”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은) 어제는 출근길에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숙고해 주길 바란다”며 법원 개혁을 반대했다. 아직도



정청래(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미나기자

국민을 팔아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며 “더 가관인 것은 사법 신뢰도는 낮지 않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사법부를 배우려고 교류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며 조 법원이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는 황당한 궤변까지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끝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법원 개혁에 맞선다면 결국 탄핵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수현 대변인도 이날 SNS에 “아침 신문 기사를 읽다가 하도 역겨워 조 대법원장에게 묻는다”며 “조 대법원장의 ‘법’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이 ‘갑작스런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밝힌 데 대해 “지극히 판사가 수십 년간 ‘날’로 계산한 구속기간을 ‘시’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갑작스럽게 석방한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왜 이 사례는 대한민국 국민 중 윤석열 단 1인에게만 적용한 것인가. 이후에 다른 국민에게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지는 왜 한마디도 안 하냐”고 따졌다. 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귀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변겅’에 콩 구워 먹듯 거의 최초로 과거 환송한 일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 일이었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부끄럽지 않느냐. 국민이 입혀 준 법복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느냐”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kjk2156@skyedaily.com

윤희숙, 서울시장 출사표... “변화 주도 리더로 선수 교체할 때”

‘부동산 닥공 3종 세트’·‘창동 신산업 육성’ 공약
국힘 첫 출마 선언... 지도부 향해 ‘尹절연’ 강조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낸 윤희숙(사진) 전 의원이 4일 당내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나라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이재명 정

부가 이번 지방선거로 서울마저 장악하게 된다면 대한민국과 서울은 모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질 것”이라며 “저는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을 지키고 다시 일으키는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패거리 지어 세금을 나눠 먹는데 골몰하는 부패 이념 정치와 랜드마크에나 집착하는 패션 정치가 지난 20년 서울을 병들게 했다”며 “낮은 정치로부터 서울을 지키겠다.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고 정직한 변화를 말하는 ‘직진’의 정치로 서울을 살려내겠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핵심 공약으로 ‘부동산 닥공 3종 세트’를 제시했다. 그는 “용적률을 최고치까지 끌어올리고 ‘용적률 500%의 제4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앙정부와 당당히 담판해 도입하겠다. 이주비 재정용자로 이재명 정부 10·15대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비 사업의 최대 장벽인 관치행정을 끝내겠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권한을 무기로 주민이 원치 않는 시설을 강요

하지 않겠다”며 “공공기여 주민 투표제를 즉시 도입해 공공기여 항목과 방식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취임과 동시에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조례와 지침을 전면 정비해 간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울 도심의 비어 있는 업무·상업용 공간을 청년과 직장인들을 위한 직주근접 공간으로 개방하겠다”며 파격적인 용도 전환 특례를 제공해 종로와 을지로 등 원도심의 주택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북 창동을 신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 랜덤과 전후방으로 연관된 산업 전체를 첨단기술과 연결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중심인 ‘K컬처 넥서스(서울랜덤 코엑스)’를 창동에

건립하겠다”며 “나라 안팎의 돈과 사람이 강북 창동에 모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K-pop 공연이 펼쳐지고, K-food를 맛보고, 화장품과 피부미용서비스를 접하고, 굿즈를 사고, 게임을 즐기고 의료 서비스를 상담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공연기획사, 여행사, 연예기획사, 식품회사, 화장품 제조사, 콘텐츠와 소비재 유통사 등 관련 기업을 함께 입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2청사를 창동에 건립하고, 현재 7개 청사에 산재돼있는 서울시 비효율을 해소하고, 도시혁신과 관련된 기능을 창동 2청사에 모으겠다”며 “강북지역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포함해 서울혁신본부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또 서울 지역 AI 연구 증진을 위해 서울지역 대학들의 공간 부족 문제 해소도 약속했다. 그는 “대학 창업 공간의 용도와 높이 제한을 걷어내고, 서울 동북부 공대 벨트 중심에 ‘홍릉 AI 벨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지금 서울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격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시장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살리며,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해결하는 경제시장”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로 선수를 교체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등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저는 작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서 계업과 파면에 대한 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단호하게 절연을 주장했다”며 “제가 일관되게 주장한 절연 문제는 8개월이 지난 지금, 그 공간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당 지도부가 지금까지처럼 결단을 주지한다면 결국 지방선거라는 심판대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kjk2156@skyedaily.com



사람 중심 휴먼르네상스 심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진심 담은 이야기로 마음을 브랜드하다

SkyDaily
변화의 본질을 담아, 내일의 브랜드 이끌다
심성브랜드연구소